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평택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임광명**

평택대학교 교양교육과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College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s to College-Related Characteristics

- Focused on Pyeongtaek University -

Kwang-Myeong Lim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Pyeongtek University

Abstract

Nowadays a sense of community based on our community further weakens due to globalization, industrializatio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tc and the community as cultural and psychological units is focused on. In other words, the concept that emphasizes the aspect of 'we' sharing the unique value and goal of community is used. In this current situation, school as an important community organization has been in the spotlight. In particular, college compared with other communities has a special influence on the community. Therefore i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community organization and its importance as part of our efforts to decrease the college students wastage rates continues to grow. The study about school as an important community organization has been conducted actively. However the people in most studies ar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o there are limitations to what these study findings apply to college.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factor analysis of college sense of community for local college students, categorized it, analyzed the factors having influence on each factor and then looked for suggestions of ways to strengthen college sense of community. According to study, sense of community is categorized into three factors such as 'sense of belonging', 'sense of solidarity', and 'sense of emotional closeness'. After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types of sense of community, factors relevant to them are grades, intimate friends, subjective well-being, community volunteer work, college service satisfaction, and so on.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college student

1. 서 론

종전에는 지리적 조건을 기준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강조 되었으나 현대는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 산업화, 글로벌화 등으로 많이 완화되었고 문화, 심리적 단위로서의 공동체를 강조하게 되었다(Hillery, 1955). 즉, 공동체 구

성원들이 가치와 신념 그리고 목표의 공유를 통해 일체감을 갖게 되고 '우리'라는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측면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맥락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Hughey & Speer, 2002; Long & Perkins, 2003; McMilan & Chavis, 1986). 따라서 이웃, 일터, 대학교, 종교기관에서부터 가상 지역사회에 까지 모든 일체감을 가진 집단은

주요어: 공동체 의식, 대학생

* 본 논문은 평택대학교 신진과제 연구사업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임광명) 전화: 031-659-8387 e-mail: lkm3719@ptu.ac.kr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공동체 의식은 측정이 가능하다(Obst & White, 2004).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우리’라는 연대감을 가진 공동체로서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들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극단적 이기주의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36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교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35위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관계지향성(참여)과 사회적 협력(실패)에서 특히 낮게 나타났다(김기현 외3인, 2010). 공동체 의식은 인간의 기본욕구로 생각되었고 이를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스트레스나 부조화 같은 부정적 심리를 경험하게 된다(Baumeister & Leary, 1995)고 하였다. 따라서 Dewey(1958)는 학교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촉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류승아(2014)는 청소년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다.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는 지역사회, 직장, 학교, 종교단체, 관심공동체(communities of interest)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대학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집단보다 특수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이라 하였다(McMilan & Chavis, 1986). 이는 대학의 목적인 지식의 생산과 보급에 노력해야함과 동시에 대학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특수한 기관이라는 것이다(Carry, 2002). 따라서 일반적인 지역공동체나 직장 공동체와는 다른 특성들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일반적인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의 공동체 연구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 대학생(평택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을 요인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둘째, 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방안과 이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

공동체(community)는 각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어느 특정 공간, 장소 또는 집단을 이루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의미, 정서, 가치 등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한다(강가영, 장유미, 2013).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은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결속과 연관된 집단의식 또는 그 집단구성원의 공통된 의식을 말한다. 여기서의 집단의식, 공통의식은 같은 지역의 동일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평균적인 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감정, 신념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확고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김경준, 1998). Nisbet(1969)도 이와 비슷하게 공동체를 서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의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께 구조하고 함께 일하면서 겪어 온 집단의식’이라 정의하였다.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정의 중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McMilan과 Chavis(1986)는 4차원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relational)’ 측면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공동체 의식을 상호영향력(influence), 욕구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소속감(membership), 정서적 친밀감/유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 등의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요소인 상호영향력(influence)은 조직이 응집력을 갖기 위한 필요 요소라고 하였으며 개인이 조직의 변화나 개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직 또한 각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하였다. 두 번째 욕구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필요하게 느끼는 것을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통된 욕구, 목적, 신념이 조직의 통합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소속감(membership)으로 각 개인이 조직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고,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네 번째는 정서적 친밀감/유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으로 조직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경험, 시간 그리고 장소들을 나누고 공유할 것이라는 신뢰 또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임광명, 2015). 또한 McMilan과 Chavis(1986)는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는데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많고,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결속감이 강해지게 되며 이것을 통해 조직이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처럼 공동체 의식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차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하는 개념으로 조직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 충성 등을 포함한다(Glynn, 1981).

한편, 공동체 의식의 해체현상과 관련지어 공동체 의식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다(김경준, 1998). 현대의 아노미, 소외, 고립 그리고 상호 의존적 관계의 상실 등 많은 결핍 현상과 관련되어서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거나 쇠퇴되고 있다고 보고(Glynn, 1981),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소속감, 공동성에 대한 열망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공동체 의식을 보다 폭넓게 보기도 한다(Brownell, 1950; Cowan, 1975; Minar & Greer, 1969). 우리나라도 집단이주의, 지역갈등, 연고주의 등과 같은 비민주적 의식이 생겨나고 산업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지역중심의 공동체가 약화됨에 따라 배타적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적 이익의 극단적 추구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희생과 배려, 참여의 의미가 주목받는 것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현대의 비인간적 사회관계를 인간화시키려는 대안 의식이 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과 연대 의식을 기반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수복, 1995).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구성원 간의 집합의식으로 보는 관점은 한계가 있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집합의식임과 동시에,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임광명, 2015).

2.2.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

현대사회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종전에 강조되었던 지역적, 집합적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강조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즉, 공동체 의식이 지역성을 강조하는 개념에서 사회적 관계, 유대, 상호작용 등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적 특성을 탈피하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이러한 의미에서 Carnoy(2002)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 기관으로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각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구축에 대한 욕구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욕구로부터 생겨나며 공동체 의식에서 벗어나있는 개인들을 묶어주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기관으로서 학교가 중요한 이유이며 지식생산 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 하였다. Mcmilan과 Chavis(1986)도 공동체 의식의 하위 구성요인들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대학'이라 하였으며, Lounsbury & DeNeui(1996)도 각 대학은 각자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공동체 공간이라 하였다. 또한 Carnoy(2002)도 대학공동체는 학생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집단과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인 지식생산의 역할과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 의식 형성의 거점으로서 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개인적 차원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발달과 주관적 복리감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였다(Cicognani, Pirini, Keyes, Joshanloo, Rostami, & Nostatabadi, 2008). 즉, 대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자신의 발달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미래의 훌륭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의식을 통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들은 대학생들의 개인 발달적 측면과 사회, 국가적 참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류승아, 2014). 그러나 한국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치열한 경쟁사회, 취업난 그리고 교과지식을 주입하는 교육방법의 문제 등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으며 더불어 공동체 의식에 관한 학교교육의 미비로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박가나, 2009).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socioemotional) 욕구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학업 성취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Sanchez, Colon, & Esparza, 2005).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들은 최근 들어 공동체 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각 대학들이 설정한 인재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각 대학들이 설정한 인재상의 공통점은 첫째, 건전한 가치관과 협동/공동체 의식을 가진 시민의식이고, 둘째,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며, 셋째, 다양함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이다(성명희, 김은주, 2016). 이러한 변화는 인성교육에서도 나타나는데 기존 인성 요소인 도덕, 윤리 등에서 타인존중, 사회성, 공동체 의식, 사회참여 등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2.3. 대학생 공동체 의식 영향요인 선행연구

공동체의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욕구로 간주되었으며(Baumeister & Leary, 1995)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기부여가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의식을 경험하기 위해 개인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시도하게 되고, 성공적인 상호작용에 실패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Baumeister & Leary, 1995). 따라서 최근 많은 학자들이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주관적 복리감의 증진을 위한 연구로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기영화 외, 2013; Gattino, De Piccoli, Fassio, & Rollero, 2013; Hawthorne et al., 2006). Pretty, Andrewes 그리고 Collett(1994)는 오스트리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의식연구에서 주관적 복리감과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향을 위한 중요 변수가 공동체의식이라 하였다. Roussi, Rapti 그리고 Kiosseoglou(2006)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과 부정적, 반사회적 성향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공동체의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부정적 심리상태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Gicognani, Perttanti, Palestini, & Prati, 2009). 대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복리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hus, Woods, & Chan, 2005: 차동필, 2006에서 재인용).

친밀한 친구관계도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친밀한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어 인간관계에 관한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Mcnamara & Wentzel, 1999; Zaff et al., 2008). 친밀한 친구관계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인간관계는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며 인간관계에 대한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원태(2001)의 연구에서는 친구관계가 민주적일수록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허인숙과 이정현(2004)의 연구에서는 친구집단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친밀한 친구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교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교내활동 참여도가 중,고등학생의 교내활동 참여도보다 공동체 의식을 더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Pretty, 1990; DeNeui, 2003). Bohus, Woods, & Chan(2005)의 연구에서도 교내활동 참여도가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교내활동의 성격, 즉 공식적 활동인가 아니면 비공식적 활동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과 같은 조직화된 공식적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조직화된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학생들 간 상호작용의 장을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적 교내활동은 공동체 의식과 정적관계로 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자발적, 비공식적 교내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차동필(2006)은 공식적 교내활동은 학점 취득, 장학금, 스펙 등과 같이 특정 목표를 두고 참여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비공식적 활동은 특정 목표를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적 활동이 공동체 의식과 높은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교내활동에 대한 연구도 교내활동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oyal & Rossi, 1996).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생각할 수 있다(김미숙, 2005; 박가나, 2009; 송복임, 2002; 정광숙, 1995; 진성희·이동주, 2010; 은지용, 2002; Mananrini & Fedi, 2009 외 다수).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참여, 문제인식, 자신에 대한 반성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공동체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문이다. 즉, 공동체 의식은 비인간적 사회관계를 넘어서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그것의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의식(정수복, 1995)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자신의 봉사활동이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식이 강화된다는 것이다(Berkman, Glass, Seeman, & Britette, 2000). 또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봉사활동을 통해 매개 변인으로서도 역할을 하는데 박재숙(201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교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Wiseman과 그의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 학교 공동체 의식이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에 대한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학교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개인적 요인인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s)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GPA)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retty, 1990; Townley, Katz, Wandersman, Skiles,

Schillaci, Timmenman, & Mousseau, 2013)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다(조명주, 2007; 노하늘, 2013). 이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ownley, Kantz, Wandersman, Skiles, Timmenrman, & Mousseau, 2013). 이러한 경향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나타났는데 공동체 의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문적 동기가 강하게 부여되어 학업성취를 위해 노력을 하게되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장기결석의 빈도도 낮게 나타났다(Royal & Rossi, 1996; Schaps & Lewis, 2000).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조명주, 2007; 조은미, 2010).

Wiseman과 그의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 학교 공동체 의식이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에 대한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학교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대학생의 주거지역도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있게 나타났는데 교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과 교외에 거주하는 학생들 간에는 공동체 의식에서 차이를 보였다(Bohus, Woods, & Chan, 2005; Lounsbury & DeNeui, 1996). 교내 기숙사 거주자가 교외거주자 보다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교내 기숙사 거주자가 학교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고 상대적으로 교외 거주 학생들은 자신이 많이 머무는 주거지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Feldman & Newcomb, 1969).

이외에도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은 공동체 의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Bohus, Wood & Chan(2005)의 연구에서 다른 학년 보다 1학년의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공동체 의식 차이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Lounsbury와 DeNeui(1995)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있었고 Bohus와 그의 동료들의(2005)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공동체 의식과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 교육학, 인문학 등의 학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체 의식을 나타냈다(Lounsbury & DeNeui, 1995, 1996; Wood, & Chan, 2005).

3. 연구방법

3.1. 측정항목 도출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Mcmilan과 Chavis(1986) 그리고 Nasar & Julian(1995)의 측정도구를 토대로 개발한 김경준(1998)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평택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특수성을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교육학 전공자와 지역사회개발 전문가 5인의 검토를 거쳐 평택대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의미가 모호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공동체 의식 하위내용의 변수 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용한 항목은 28개이었다.

3.2.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중순부터 6월 초 까지 평택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346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25부를 제외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7개 사례수는 SPSS 통계 패키지의 회귀분석 시 자동적으로 제거되어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최종 사례수는 314개 이다.

3.3. 분석방법

공동체 의식은 다변량 통계 기법을 통해 학생들을 집단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등을 활용한다(Dolnicar, 2002). 공동체 의식의 차원을 도출하기 위해 SPSS 20.0을 이용하여 측정된 변수들을 베리맥스 회전방법(varimax rotation method)과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차원의 요인들은 군집분석을 통해 비슷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도출하였다. 요인분석 시 변수와 요인 수 선택은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2006)이 제시한 요인고유치 1 이상, 요인부하량 0.5 이상, 원 변량의 60% 이상을 설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공동체 의식 유형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체크하였으며,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토를 위해 Durbin-Watson의 통계량을 계산하였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성별은 여성이 182명(57.1%)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상이 51명(16.1%), 중이 221명(69.9%), 하가 44명(13.7%)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결과는 평택지역 외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166명(52.0%)로 나타나 지속사가에 거주하는 학생 70(21.9%)이나, 평택지역 내에서 통학 하는 학생83(26.0%) 보다 많았다. 학생가정의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215명(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00-400만원으로 165명(35.9%)이었다. 학과분포는 인문사회계열이 135명(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공계열이 32명(10.0%)로 가장 적었다. 거주기간은 0-4개월이 59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1개월 이상 으로 57명(30.3%)이었다.

4.2. 공동체 의식 요인분석

공동체 의식 차원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 분석 과정에서 “우리대학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의지할 수 있다”와 “나는 우리대학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당장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학교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는 요인적재치가 겹쳐 서 나타났기 때문에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Bartlett test of sphericity)와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실시하였다. Bartlett의 구형검사(Bartlett test of sphericity)는 상관계수 행렬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상관계수 행렬이 대각행렬인가를 검정하는 것이며 분석결과 상관계수행렬이 영행렬이라는 가설은 1%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변수간의 편상관을 조사하는 것으로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case 수가 적절한지를 나타내는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며 이 값이 0.8이상이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896으로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21)

구분		빈도(%)
성별 (n=319)	남성	137(42.9)
	여성	182(57.1)
성적 (n=316)	상	51(16.1)
	중	221(69.9)
	하	44(13.7)
거주지 (n=319)	학교 기숙사	70(21.9)
	평택지역내 통학	83(26.0)
	평택지역외 통학	166(52.0)
월소득 (n=460)	200만원 미만	215(46.7)
	200-400만원 미만	165(35.9)
	400-600만원 미만	57(12.4)
	600만원 이상	23(5.0)
학과 (n=321)	예술계열	100(31.2)
	이공계열	32(10.0)
	인문사회계열	189(58.9)
거주기간 (n=190)	0-4개월	59(31.1)
	5-16개월	42(22.1)
	17-28개월	18(9.5)
	29-40개월	14(7.4)
	41개월 이상	57(30.0)

요인분석 결과 공동체 의식의 16개 속성으로 3개의 요인이 만들어졌다. 생성된 3개 요인은 총 분산의 63.57%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 부하량은 0.5 이상이였다. 전체 공동체 의식 속성의 Cronbach α 값은 0.895였으며, 각 요인의 Cronbach α 값은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우리 대학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 질서가 있다’, ‘타 대학 학생들에게 우리대학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우리대학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대학의 발전에 나의 노력이 기여할 수 있다’, ‘우리대학에 소속되어있어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대학은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등 6개의 변인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변인은 대학의 소속감과 관련되어 있어 ‘소속감’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45.01%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는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우리대학에 문제가 생길 땐 학생들이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 ‘우리대학 학생들이 단결하면 어떤 어려움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학교 안에서 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의 4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변인은 학생들의 연대감과 관련되어 있어 ‘연대감’으로 명명하였

〈표 2〉 공동체 의식 요인분석 결과 (N=321)

변 수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Cronbach α	평균 ^a
요인 1: 소속감		5.851	45.01	.852	2.94
우리대학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755				3.03
우리대학의 발전에 나의 노력이 기여할 수 있다	.723				2.97
우리대학에 소속되어있어 혜택을 받고 있다	.672				2.90
타대학 학생들에게 우리대학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668				2.76
우리대학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 질서가 있다	.609				2.89
우리대학은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72				2.95
요인 2: 연대감		1.401	10.78	.800	2.89
우리학교 학생들이 단결하면 어떤 어려움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763				2.95
나는 우리학교 안에서 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706				3.18
우리대학에 문제가 생길땐 학생들이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	.684				2.81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641				2.64
요인 3: 정서적 친밀감		1.012	7.79	.771	3.31
우리대학 친구가 잘 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857				3.51
우리대학 친구가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834				3.36
우리 대학 안에는 가족과 같이 정말로 염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614				3.06

설명분산의 누적값 = 63.57%, KMO = 0.89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chi^2 = 1873.258$ ($df = 78$, $p < 0.001$)

a: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으며 전체 변량의 10.78%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우리대학 친구가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우리대학 친구가 잘 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우리대학 안에는 나를 가족과 같이 정말로 염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의 3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변인은 정서적인 친밀감과 관련되어 있어 ‘정서적 친밀감’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7.79%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우리대학 친구가 잘 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3.51)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대학 친구가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3.36), ‘나는 우리대학 안에서 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3.18)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평균값은 ‘정서적 친밀감’(3.3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소속감(2.94), ‘연대감’(2.89) 순이었다.

4.3. 공동체 의식 유형에 미친 영향요인 분석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VIF 값은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차항의 독립성 검토를 위해 Durbin-Watson의 통계량을 계산하였으며 4개의 회귀식 모두 D-W 값

이 1.85-1.99로 나타나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50.00$, $p<0.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소속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이공계열($\beta=-0.09$, $p<0.05$), 친밀한 친구($\beta=0.16$, $p<0.01$), 주관적 복리($\beta=0.12$, $p<0.01$), 지역사회활동 중 평택대학인근 지역사회봉사활동($\beta=0.18$, $p<0.01$), 서비스만족도($\beta=0.48$, $p<0.01$)였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밀한 친구, 주관적 복리감,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평택대학이나 인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공계열일수록 공동체 의식 중에서 소속감이 낮게 나타났다.

연대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0.91$, $p<0.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연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밀한 친구($\beta=0.23$, $p<0.01$), 주관적 복리감($\beta=0.16$, $p<0.01$), 서비스 만족도($\beta=0.55$, $p<0.01$)였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밀한 친구, 주관적 복리감, 서비스 만족도가 높

(표 3) 공동체 의식 유형별 영향요인 회귀분석 (N=314)

독립변인	종속변인	소속감		연대감		정서적 친밀감		공동체 의식 전체	
		β	VIF	β	VIF	β	VIF	β	VIF
성별(남자=1, 여자=2)		0.02	1.00	0.00	1.00	0.10**	1.01	0.05	1.01
	인문사회계열(더미 0 or 1)	-0.03	1.25	0.02	1.02	0.00	1.05	0.00	1.03
	예술계열(더미 0 or 1)	0.03	1.11	-0.01	1.04	0.02	1.09	0.04	1.08
	이공계열(더미 0 or 1)	-0.09*	1.08	-0.02	1.01	-0.02	1.02	-0.05	1.02
성적(하=1, 중=2, 상=3)		0.06	1.05	0.02	1.03	0.14**	1.04	0.10**	1.03
	학교내(더미 0 or 1)	0.07	1.02	0.05	1.01	0.02	1.01	0.05	1.02
	평택시내(더미 0 or 1)	0.02	1.05	-0.02	1.00	0.05	1.01	0.02	1.03
거주지	평택시외(더미 0 or 1)	-0.07	1.07	-0.03	1.01	-0.07	1.01	-0.06	1.05
	거주기간(월)	-0.03	1.09	-0.05	1.00	-0.01	1.00	-0.05	1.08
	친밀한 친구(1=not at all, 5=very agree)	0.16**	1.11	0.23**	1.10	0.32**	1.06	0.28**	1.13
주관적 복리감(1=not at all, 5=very agree)	0.12**	1.15	0.16**	1.14	0.08	1.14	0.16**	1.14	
지역 사회 활동	캠퍼스내 조직화된 활동이나 프로그램(학생자치회, 언론사, 동아리)(1=not at all, 5=very agree)	0.18*	1.27	0.08	1.05	0.00	1.06	0.05	1.26
	캠퍼스 내 비공식적 활동(초청강연, 여가시설이용, 친목회, 비공식적 모임)(1=not at all, 5=very agree)	0.01	1.59	0.08	1.09	0.04	1.13	0.04	1.40
	평택대학이나 인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불우이웃돕기, 장애시설봉사)(1=not at all, 5=very agree)	0.16**	1.22	0.04	1.01	0.08	1.02	0.12**	1.03
	서비스 만족도(1=not at all, 5=very agree)	0.48**	1.12	0.55**	1.07	0.26**	1.03	0.49**	1.08
R^2		0.49		0.49		0.24		0.50	
Adjusted R^2		0.48		0.49		0.23		0.49	
F-Value		50.00**		100.91**		24.33**		61.64**	
D-W		1.85		1.93		1.99		1.91	

* p<0.05, **p<0.01

은 사람일수록 연대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24.33, p<0.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23%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정서적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0.10$, p<0.01), 성적($\beta=0.14$, p<0.01), 친밀한 친구($\beta=0.32$, p<0.01), 서비스 만족도($\beta=0.26$, p<0.01)였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자이고 성적이 높으며, 친밀한 친구가 많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공동체 의식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61.64, p<0.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전체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적($\beta=0.10$, p<0.01), 친밀한 친구($\beta=0.14$, p<0.01), 주관적 복리감($\beta=0.32$, p<0.01), 지역사회 봉사활동 중에서 평택대학이나 지역사회봉사활동($\beta=0.26$, p<0.01), 서비스 만족도($\beta=0.10$, p<0.01)였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전체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 친밀한 친구, 주관적 복리감이 높고, 평택대학이나 인근 지역사회에서 불우이웃돕기나 장애시설 봉사 활동이 많으며, 서비스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전체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대학생(평택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 ‘연대감’, ‘정서적 친밀감’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 의식의 평균값은 ‘정서적 친밀감’(3.31), ‘소속감’(2.94), ‘연대감’(2.8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측면’을 강조한 선행연구(김경준, 1998; Glynn, 1981; Mcmilan & Chavis, 1986; Minar & Greer, 1969)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의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성적, 거주지, 거주기간에서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높은 학생 일수록 강한 공동체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거주지가 학교 기숙사나 평택지역 내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강한 공동체형의 비율이 높았으며, 거주기간이 0-4개월과 41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에서 강한 공동체의 비율이 높았다.

공동체 의식 유형에 미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소속감’은 48%의 설명력으로 나타났으며 친밀한 친구, 주관적 복리감, 지역사회활동 중 평택대학 인근 지역사회 봉사활동, 서비스 만족도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대감’은 49%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친밀한 친구, 주관적 복리감, 서비스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서적 친밀감’은 2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별, 성적, 친밀한 친구, 서비스 만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체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설명력은 49%로 나타났으며 성적, 친밀한 친구, 주관적 복리감, 지역사회봉사활동 중에서 평택대학이나 지역사회활동, 서비스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서비스 만족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소속감’, ‘연대감’, ‘정서적 친밀감’ 등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Wiseman과 그의 동료들(2004)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교와의 관계를 더욱 친근하게 느낀다는 것이며 대학공동체 의식의 한 요인인 욕구 충족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필요를 잘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친밀한 친구관계가 형성된 경우 ‘소속감’, ‘연대감’, ‘정서적 친밀감’ 등 공동체 의식의 모든 부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김원태, 2001; 허인숙, 이정현, 2004; Mcnamara & Wentzel, 1999; Zaff et al., 2008)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친밀한 친구관계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인간관계는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며 인간관계에 대한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

(김미숙, 2005; 박가나, 2009; 정광숙, 1995; 진성희 · 이동주, 2010; Mananrini & Fedi, 2009)과 비슷한 결과이다. 대학생들의 가지는 대학의 공동체 의식이 대학 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장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지식을 생산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고유한 역할 이외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각 대학들이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는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역량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주관적 복리감이 대학의 공동체 의식과 유의미하게 관련을 나타내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기영화 외, 2013; Bohus, Woods, & Chan, 2005; Gattino, De Piccoli, Fassio, & Rollero, 2013; Hawthorne et al., 2006; Roussi, Rapti & Kiosseoglou, 2006; Pretty, Andrewes & Collett, 1994)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신이 속한 대학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애착이 여러 가지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Banyard & Williams, 2007; Greenfield & Marks, 2010; Hobfoll, Jackson, Pierce & Young, 2002; Thomas & Hall, 2008). 이는 대학 신입생들의 부적응문제, 재학생의 중도탈락률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주관적 복리감과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평택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생활 만족도 및 지역사회 친밀도와 연관성을 분석하여 공동체 의식과 연관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강가영, &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2.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김나영. (2001).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정치교육효과 지각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정치지식, 기능 및 태

- 도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미숙. (2005). 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김영섭. (1997). 우리나라 농촌지역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6(1), 25-65.
 7. 김왕근. (1995). 공동체의식의 두 측면. 사회와 교육, 20(1), 61-72.
 8.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1), 49-88.
 9. 김재식. (2014).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초등 도덕과 교육의 전략 탐색.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지*, 45, 29-52.
 10. 류승아. (2014).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28(3), 43-60.
 11. 문재우, & 박재산. (2013). 중학생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4(2), 29-45.
 12.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 연구*, 16(10), 273-306.
 13. 박광재. (2008).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육의 방향. *윤리철학교육*, 10, 23-38.
 14.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7(4), 101-120.
 15. 서강식. (2011).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초등 도덕과 과서 장애관련 내용분석 연구. *공주교대논총*, 47(1), 57-74.
 16. 서주영. (2001).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437-459.
 18. 서재호, & 조홍식. (2012).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역사회 자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19. 성명희, & 김은주. (2015).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중요도 인식 및 인성발달 수준과 요구도 분석. *한국윤리교육학회지*, 38(3), 177-202.
 20. 심재권, & 황정희. (2014). 대학생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연구: 지역학(천안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441-464.
 21. 유종숙. (2003). 한국의 대학 PR 연구 분석: 최근 13년간의 연구 동향 및 비판. *한국광고학보*, 5(2), 28-62.
 22. 이영원. (2010).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 정체성과 지역 만족도에 대한 연구: 전주, 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2), 252-277.
 23. 정수복. (1995). *공동체의식과 시민운동*. 서울: 공보처.
 24. 조영숙, 황대용, 박은식, & 고정숙. (2004).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의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4), 113-125.
 25. 차동필. (2006). 대학생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8(1), 169-183.
 26. 최형임, & 문영경. (2013). 청소년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89-209.
 27. 허인숙, 이정현.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과 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15(2), 443-472.
 28. Angell, R. C. (1928). *A study of contemporary undergraduate life in the American university*. New York: Appleton.
 29.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30. Bonus, S., Woods, Jr. B. H., & Chan, K. C. (2005).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mong students on religious collegiate campuses in the christian evangelical traditi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4, 19-40.
 31. Carnoy, M. (1972). An empirical study of powerl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High School Journal*, 55, 353-354.
 32. Chavis, D. M., & Pretty, G. (1999). Sense of community: Advances in measurement and applic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635-642.
 33. Chipuer, H. M., & Pretty, G. M. H. (1999). A review of the sense of community index: Current uses,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further develop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643-658.
 34. Cicognani, E., Pirini, C., Keyes, C., Joshanloo, M., Rostami R., & Nostatabadi, M. (2008). Social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welling being: A study on American, Italian, and Iranian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 Research*, 89, 97-112.
 35. Feldman, K. A., & Newcomb, T. M. (1969). *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s: An analysis of four decades of research*. San Francisco, LA: Jossey-Bass.
 36. Glynn, T. (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 780-818.
 37. Gusfield, J. R. (1975). *The community: A critical response*. New York: Harper Colophon.
 38.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39. Hughey, J., & Speer, P. W. (2002). Community, sense of community, and networks. In A. T. Fisher, C. C. Sonn, & B. J. Bishop (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pp.69-84).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40. Long, D. A., & Perkins, D. D. (200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ense of community index and development of a brief SCI.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 279-296.
41. Long, D. A., & Perkins, D. D. (2008). Community social and place predictors of sense of community: A multilevel and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 563-581.
42. Lunsbury, J. W., & DeNeui, D. (1996). Collegiat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 to size of college/university and extrovers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381-394.
43. Mannarini, T., & Fedi, A. (2009). Multiple sense of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 211-227.
44. Manzo, L. C., & Perkins, D. D. (2006). Finding 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to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0*, 335-350.
45. Pretty, G. H. (1990). Relating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to social climate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60-65.
46. Riger, S., & Lavrakas, P. (1981). Community ties patterns of attach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55-66.
47. Royal, M. A., & Rossi, R. J. (1996). Individual: Level correlates of sense of community: Findings from workplace and school.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395-416.
48. Tartaglia, S. (2006). A preliminary study for a new model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1), 25-36.
49. Townley, G., Kantz, J., Wandersman, A., Skiles, B., Schillaci, M. J., Timmerman, B. E., & Miusseau, T. A. (2013). Exploring the role of sense of community in the undergraduate transfer student experi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277-290.
50. Mcmi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51. Pacilli, C. B., & Zampatti, E. (2009). The MTSOCS: A multidimensional sense of community scale for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3), 305-326.
52. Peterson, N. A., Speer P. W., & Hughey, J. (2006). Measuring sense of community: A method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debat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4), 453-469.
53. Sanchez, B., Colon, Y., & Esparza, P. (2005) The role of sense of belonging and gender in the academic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619-628.
54. Wiseman, R. L., Gonzales, S. M., & Salyer, K. (2004).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tudents sense of cimmunity, degree of involvement, and educational benefit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tudies, 13*, 173-189.
55. Zaff, Malanchuk & Eccles. (2008). Predicting positive citizenship for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the effect of a civic context.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2*(1), 38-53.

Received 20 May 2016; Revised 05 June 2016; Accepted 18 June 2016



Dr. Kwang-Myeong Lim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Pyeongtaek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sense of community, personality education and personality test. Address: (3825) Pyeongtaek University, 3825 Seodong-daero, Pyeongtaek-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lkm3719@ptu.ac.kr phone) 82-31-659-8387